

Lamar University 라마대학교
2022학년도 봄학기 교환학생 체험 후기

언어학과 한영은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1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미국 텍사스 주에 위치한 Lamar University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던 언어학과 한영은 이라고 합니다. 미약하나마 추후 라마대 혹은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학우분들께 제가 준비했던 과정을 공유해드리고자 체험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 제 경험담이 여러분들의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파견 전

1) 서류(입학 허가서, 비자)

입학 허가서 및 비자(J-1) 신청을 위한 서류(DS-2019) 등을 위한 준비할 절차는 국제교류본부와 라마대 측에서 모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잘 준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서류 준비 과정에서 '영문 이름 철자'와 주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에서의 오타로 인해 서류를 다시 발급받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작성 완료된 DS-2019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름 오타를 발견하여 다시 재발급 받는 상황도 있었던 터라, 저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 제출 전, 그리고 발급받은 이후에도 한 번씩 더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파견학교 측의 실수였기에 문서는 다시 수정하여 받을 수 있었습다!

제가 파견을 위해 비자 발급을 준비하던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 J-1비자 인터뷰는 면제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으로 대면 면접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서와 인터뷰 면제 확인서 등의 문서들을 출력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택배사를 이용하여 대사관으로 우편을 보내는 것이 비자 발급의 절차였습니다. 저에게는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도 복잡하고 긴장되는 과정으로 다가왔었고, 실제로도 엄청 복잡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많은 절차였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교환을 준비하는 분들의 포스팅 등이 도움이 되므로 검색을 통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첫 페이지에서 부여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일련번호는 무조건 캡처 혹은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페이지가 수시로 다운되기 때문에 창이 닫힌 이후에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일련번호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짐

지나고 보니, 파견을 위한 짐을 챙길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라는 내용의 미국 유학생 블로그 포스팅이었습니다. 정말 격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혹시나 미국에는 없을까 봐, 한국보다 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등등의 이유로 여분의 여분까지 챙겨갔던 학용품과 여러 물건들 거의 대부분 쓰지도 않고 한국으로 택배 보냈더랬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학기에 국제학생들을 맡았던 Study Abroad 직원분들께서는 라마대로 가던 첫날 Walmart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불, 샴푸/린스, 빨래 건조대, 드라이기, 청소용구 등등의 생필품들은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피가 큰 물건들은 굳이 가져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학용품의 경우 꼭 한국 제품을 써야 한다, 필기가 가능한 전자기기가 없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넉넉히 여분을 챙겨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다 팔았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종류가 다양하거나 문구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필기를 위한 기본적인 필기구들은 충분히 미국제품들도 쓸만합니다.

흐름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파견 종료 이후 당황스러웠던 경험이었다. 미리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환 기간을 지내다 보면 거의 100% 가져갔던 짐보다 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 이후 바로 귀국을 하던, 미국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게 되던 기숙사에 있는 짐 모두를 가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귀국보다 먼저 일부 짐들을 한국으로 배송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짐을 보낼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짐 미리 부치시고 편하게 이동하세요. 그리고 이 택배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할 시기는 최소 종강 전 1주일 정도는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배 보내는 것도 신청 및 택배 회사까지 물품을 보내야 하는 등의 추가 절차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보낼 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기숙사 혹은 학교 학생들에게도 필요하겠단 싶은 물건들은 Study Abroad 직원분께 말씀드려서 기부하고 라마대를 떠나는 방법도 있었고, 저도 어느 정도의 짐들은 그렇게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3) 도착 및 이동

라마대학교는 미국 중남부 텍사스 주의 ‘휴스턴’이라는 주요 도시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이동해야 하는 ‘보몬트’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더라도 보몬트까지 직항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경유를 한 번 거쳐, 텍사스의 휴스턴으로 최종 도착하는 비행편을 이용했습니다. 항공권은 출발 시에 왕복으로 끊는 것이 가장 저렴했고, 나중에 귀국편 비행기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변경 수료를 내면 변경할 수 있었으니 출국하는 비행기를 구매할 때 왕복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학교 측에서 휴스턴에서 보몬트로 가는 셔틀은 무료로 제공해줘서 휴스턴에

도착 후 하루는 같이 파견된 분들과 해결하고 학교로 편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마대로 파견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합격 후 Study Abroad 측과 셔틀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눠보세요. (입국 때는 휴스턴까지 셔틀을 제공해줬지만, 귀국 시에는 제공이 안 된다고 했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파견 중

1) 강의

교환학생이 J-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수강해야 했던 최소학점은 12학점이었고, 저 또한 12학점, 4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2022학년도 Spring semester 때는 아직 코로나가 완벽히 회복되지 않아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혼합 방식의 강의들이 혼재했습니다. 수강신청 시에는 강의를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OT 수업 날 다들 설명해 주셨으며 개강 이후 1주일 동안은 수강 변경이 가능한 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의는 대부분 1시간 씩 주 3회 혹은 1시간 반씩 주 2회로 구성된 강의들이 많았고, 12학점만 수강하다 보니 생각보다 강의는 오전 혹은 이른 오후에 끝나고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최소학점보다 더 많은 학점을 수강하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학점을 수강하며 교환 기간을 충분히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교에서와 파견교에서 동일한 전공을 수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공 학점도 파견 기간을 통해 채울 수 있었겠으나, 제 전공인 언어학은 라마대학교 학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저는 아동언어장애(Language Disorders in Children), 일반심리학(General Psycholog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사회학개론(Introduction to Sociology)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시험은 모든 강의들에서 총 4번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본교처럼 중간과 기말고사로 크게 나누는 방식이 아닌, 4번에 걸친 작은 시험들로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의 강의 방식인 듯 했습니다. 각각의 시험들은 교수님들에 따라 모두 객관식으로 치러지기도 하고, 객관식과 단답형 혹은 서술형이 포함된 시험으로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4번의 시험과 각 과목의 교수님들께서 지정하신 에세이 과제들을 토대로 절대평가로 성적이 매겨집니다. 저도 파견 전에는 과연 교환기간 동안의 성적이 본교 졸업 학점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으나, 아무래도 절대평가이다 보니 본인이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교환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부대시설

-도서관

*1인당 한 학기 동안 1000장까지 무료 출력 가능

*도서관에 위치한 Writing clinic에서 에세이 첨삭 받을 수 있음(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고 도서관 1층으로 방문해야 함)

*8층에서는 학술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학생들에게 참석 후 소감문 제출 시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음

- 보건소(Student Health Center)

*등록 시 납부하는 보험료를 Credit 개념으로 축적해놓고 진료를 받을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학기 초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채워지는 Credit은 150인가 250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코로나 검사 및 백신 접종 무료

*미리 예약(전화 혹은 방문)을 해야 이용 가능함

*파견되었던 기간 동안 감기와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보건소에서 진료받고 약 처방을 받아보았음

(외과적 수술과 같이 꼭 병원 방문이 필요한 정도의 아픈 것이 아니라면 참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이용하시길...!)

- 학생회관 (The Setzer Center, The Set)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한 건물, 주변에 도서관을 비롯하여 경상대와 Study Abroad 건물, 자연과학대 등의 여러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음

*이 곳에서 파견 이후 가장 먼저 실시되는 공식적인 행사인 국제학생 OT가 열림

*학생회실 및 여러 회의실로 사용되는 방들과 학생회장 등의 직원 사무실이 위치해 있음

*1층에는 기숙사 식당이나 마켓 외에도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위치해 있음

*종종 학생들의 연구결과나 교수님들의 연구결과를 전시하는 경우들도 있었음

- Recreation Center (The Rec)

* 학생회관 건물 뒤편에 위치한 건물로 학생들의 운동을 위한 장소

* 기숙사 출입카드 혹은 학생증 등 라마대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을 지참한 후 Rec 건물 1층에서 학생등록을 완료하면 시설 이용 가능함

* 농구, 클라이밍, 탁구, 배드민턴 및 축구 코트,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음

* 매주 한 번씩 저녁에 S'more를 해먹는 행사가 열림

- Study Abroad Office

*파견 전, 파견 기간 중 모든 질문과 여러 가지 처리를 담당해주시는 곳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이메일 혹은 직접 방문하면 같이 해결해 주셨음

*매주 금요일 오전 Pop corn Day로 놀러가면 팝콘 한 봉지 얻을 수 있음

*한국에서의 교환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학생들을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

3) 기숙사 / 학내 식당들

라마대 전체에는 총 5개 동의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환학생들은 자동으로 모두 Campbell Hall에서 지내도록 해주었는데, 기숙사들 중 가장 시설이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고 라마대 재학생들이 많이들 이야기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한 호실은 거실과 화장실 및 개인방 2개로 이루어진 2인실이였으며 상당히 크기가 컸습니다. 1층에는 공용주방과 탁구대를 포함한 작은 공용 공간이,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기숙사 건물의 각 층에는 공용 세탁실이 있었습니다. 세탁실의 세탁기와 건조기는 이용 요금은 무료였으나 세제와 섬유유연제 등은 각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숙사 이용 비용과 더불어 학기 초에 지불하게 되는 학비에는 기숙사 식비가 있습니다. 라마대에서는 총 4가지 타입의 식비 유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강력하게 가장 적은 횟수의 meal swipe와 dining dollar를 포함하고 있는 타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meal swipe란 기숙사 식당에 들어가는 이용권을 말하며 1주일에 10회 이런 식으로 주 별로 횟수를 지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dining dollar는 학내의 스타벅스나 식당들에서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이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학기 초반에는 친구도 별로 없고, 외출을 자주 할 수 없으니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숙사 식당 식단에 질리게 되고 밖에서 사먹거나 학내 편의점에서 사먹는 횟수가 많아지므로 가장 적은 meal swipe로도 충분히 한 학기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비 유형 또한 학기 초 일정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니, 숙고하신 후 선택하세요.

*chick-fil-a - 학생회관 건물 1층에 위치 / dining dollar 사용 가능 / 한국에는 아직 입점되지 않은 브랜드라 추천함 ㅎㅎ

*판다 익스프레스 - 학생회관 건물 1층에 위치 / dining dollar 사용 가능

*학내 편의점 - Campbell Hall 맞은 편 건물 1층 코너와 기숙사 식당 건물에 위치 / dining dollar 사용 가능 / 파파존스 피자, 샐러드, 컵과일 등과 소량의 생필품 판매

*스타벅스 - 도서관 1층에 위치 / dining dollar 사용 가능

4) 생활환경

-날씨

: 텍사스는 여름에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운 날씨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녀온 학기는 봄학기였던지라 직접 살인적인 더위를 느껴볼 일은 없었으나 30도를 육박하던 날도 몇몇 있었으므로 여름과 봄 옷들을 주로 챙

기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봄학기가 시작되는 1월 중순의 경우 초겨울 정도의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들도 다수 있었지만 긴팔 옷들로 버틸 수 있는 추위였습니다. 권장 패딩 정도면 추위는 견딜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기숙사에서 히터와 에어컨을 제공해주기도 했구요. 양질은 아니지만 추위를 버틸 만한 정도의 옷들은 walmart에서도 팔고 있었으니 부피가 큰 옷들은 가서 장만한느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몬트에서 한 번 비가 오면 정말 많이 들이붓듯이 오고, 비가 온 다음 날은 높은 확률로 쌀쌀해 졌습니다. 확실히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기온차가 좀 크다는 것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

: 4개월 동안 미국의 모든 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가장 한국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교통이었습니다. 학교 안에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미국에서 대중교통은 조금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타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걸어서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라마대측에서 매주 주말마다 walmart와 여러 mall이 있는 구역으로 셔틀을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녔던 시기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원활히 운행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즉, 마트나 주변 구경 혹은 휴스턴 방문 등에는 모두 자가용이 필수입니다... 이 점이 아직 친구를 사귀기 힘든 학기 초에는 걱정거리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마트 정도는 함께 가주는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정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버스타는 것만 조금 경계하시면 교통도 나중에는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파견 후

1) 라마대의 단점

파견 기간 내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교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여러분의 인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못 올지도 모르는 타국, 열심히 돌아다녀 봐야지요!! 저희는 파견 기간 동안 알게 된 너무 고마운 친구들 덕분에 휴스턴에서 NBA 농구 경기, 오스틴 2박 3일 여행, 지역 축제 참가, 무수한 외식 등 사소하지만 소중한 여러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학기 초와 친구들이 스케줄이 안 맞을 때에는 정말 답답하고 큰 걱정거리였던 교통수단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덕분에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2) 라마대의 장점

운 좋게 저희가 파견된 봄학기 중 라마대에서 재직중이셨던 한국인 교수님들을 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께서 모두들 입모아 라마대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점은 학비가 미국의 다른 대학들 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꼭 파견되고 싶은 미주 지역이 특정된 분들이 아닌 영어 실력 증진 혹은 미국의 교육환경과 문화를 경험해보기 위해 교환학생을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휴스턴이나 오스틴 등 텍사스 주의 큰 도시들에도 좋은 대학교들이 많이 위치해 있지만 라마대학교는 비교적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이라도 좀 더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여 회화나 미국 생활을 깊이있게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인은 인문대생이라 그리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나 라마대학교는 STEM이라 일컫는 실험실과 자연과학대 강의가 이루어지는 신축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대 혹은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우분들이라면 좋은 인프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교수님들께 라마대학교 대학원 과정 중 하나인 언어치료 관련 학과인 Speech and Science의 석사 과정이 미국 내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의 석사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학부생들도 수강신청 시에 면밀히 살펴보면 학부와 석사생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석사과정의 수업들도 있으니 언어치료 및 병리에 관심이 있는 학우분들께도 라마대학교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주변 교수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덕분에 보몬트 지역 축제인 Mardi grass나 지역에서 내노라하는 식당들에서 지역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행사에 참여해보는 등 여러 경험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염두에 두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마냥 망설이고만 있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여 이런 이색적인 축제들과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적은 저의 후기와 생각들 이외에도 학우분들께서 교환학생을 준비하며 궁금하신 점이나 막막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hanye00@naver.com 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경험한 것에 한하여는 힘 닿는 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